



새벽이 지나면 해가 뜬다

학성고 2-3 여동하

띠띠띠띠.

알람이 적막을 깬다. 누운 채로 손을 위로 뻗어 알람을 끈다. 일어나기에 한참은 이른 시간이지만, 그래도 힘써 몸을 일으켜 본다. 창밖은 아직 어두컴컴하다. 잠시 멍하니 앉아 있다가 마침내 이불을 걷어내고 화장실로 향한다.

새벽에 일어나기로 마음먹은 것은 두 달 정도 지났다. 일찍 일어나 학교에 가기 전, 뒷산에 한 번 올라갔다 온다. 처음에는 새벽에 일어나는 일이 죽도록 힘들었는데, 기상도 습관인지 이제 꽤나 수월해졌다. 습관을 형성하는 데 두 달 정도 걸린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은 적 있는 것 같다.

대충 세수를 하고 운동할 때 입는 반팔 티로 갈아입은 뒤 집을 나선다. 어느새 하늘은 꽤나 밝아졌다. 밝기는 해도 이른 시간인데, 산에는 나처럼 운동 겸 산책을 나온 사람들이 많다.

맑고 차가운 산의 공기는 내 정신마저 맑게 만든다. 산의 공기를 마시며 한 걸음, 두 걸음 떼다 보면 잡생각이 사라지고 산과 닿는 발끝의 신경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 처음엔 고민과 걱정을 털어 내보고자 시작한 일인데, 이제는 새벽에 산을 오르는 일에 일종의 자부심마저 느끼고 있다.

산의 일부가 되어 걷다가 어느새 정상에 오르면, 내가 사는 곳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쥐 죽은 듯 잠들어 있던 동네가 언제 그랬냐는 듯 분주해진다. 캄캄한 새벽을 지나 드디어 빛을 본다.

정상에 오르고 15분 정도가 지나면 해가 뜬다. 두 달째 매일 보는 광경이지만 강렬한 붉은빛이 동네를 감쌀 때, 나는 늘 새로운 감상을 느낀다. 눈을 떼 수 없는 태양의 빛이, 그 생명력이 나를 홀려놓는다. 나는 아마 이 광경을 위해 새벽의 단잠을 포기하며, 지친 몸을 일으키는 수고로움도 마다하고 산을 오르나 보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새벽이 찾아온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캄캄한 어둠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존재일 것이다. 나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새벽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는 일은 지겨울 정도로 많았다.

언젠가 정말 긴 새벽이 왔을 때, 거의 한 해를 어둠 속에서 보낸 적이 있다. 어둠 속에서 버티는 일이 너무 힘들어 그만두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었다. 지금 보면 지나가는 새벽인데 왜 그리 두려워했는지, 그때의 나에게, 새벽을 사는 모두에게, 결국에 해가 뜬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내가 산에 올라간 두 달 내내, 살아온 십칠 년 내내 새벽이 지나면 해가 뜨더라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이 이야기가 믿기지 않는다면, 산을 올라 보라. 새벽에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와 보라. 산에 올라 동쪽을 바라보면 늘 그렇듯이 해는 떠오르니까.

지금이 무슨 시간인지는 모르겠다. 아침일 수도 있고, 저녁일 수도 있고. 결국에는 시간이 흘러 새벽이 찾아올 텐데, 그때는 훨씬 수월히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에 해는 떠오르니까.